

“아름다운 남도의 설경…겨울 낭만여행 즐기세요”

전남도 12월 관광지 4選

순천 낙안읍성·담양 메타프로방스

지리산 노고단·화순 세량제 추천

전남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일상에 휴식을 더할 여행지로 설경이 아름다운 순천 낙안읍성, 담양 메타프로방스, 구례 지리산 노고단, 화순 세량제 등 4곳을 12월 겨울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추천 여행지는 겨울의 낭만과 별미를 즐길 수 있어 한 해 수고한 품과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제격이다.

순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읍성과 초가집, 토성이 온전히 남아 있는 살아있는 민속마을이다. 겨울이면 초가지붕과 성과 위로 눈이 내려 고즈넉한 설원을 연출한다. 흰 눈이 덮인 돌담길과 굽이진 골목, 전통가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우러져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겨울 사진 명소다.

순천 대표 음식 짹뚱어탕은 순천만 청정 갯벌에서 잡힌 짹뚱어를 갈아 끓여 뜰깻가루의 고소함과 시원한 국물이 어우러진 겨울철 보양식이다. 우거지, 시래기, 들깨가 듬뿍 들어가 영양까지만점이다.



전남도가 겨울의 낭만과 별미를 즐길 수 있는 순천 낙안읍성, 담양 메타프로방스, 구례 지리산 노고단, 화순 세량지 등 4곳을 12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사진은 눈 내리는 순천 낙안읍성 전경.

초지, 구례 시내와 어우러진 섬진강 풍경은 환상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노고단에서 겨울 산행을 즐긴 뒤 구례읍내로 내려오면 지리산 자락에서 나온 각종 산나물과 버섯을 듬뿍 넣은 산채정식, 버섯전골, 섬진강을 품은 고장답게 다슬기로 만든 수제비와 전골을 맛볼 수 있다. 눈 덮인 지리산 자락에서 언 몸을 풀어주는 구례 대표 겨울 별미다.

화순 세량제는 산으로 둘러싸인 저수지다. 겨울이면 잔잔한 수면 위로 펴어오르는 물안개와 가장자리를 감싼 눈 덮인 숲이 어우러져 몽환적 설원을 이룬다. 이른 아침 얼어붙은 나뭇가지와 옅은 안개가 겹치는 풍경은 사진가들에게 ‘겨울 풍경 성지’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정취를 자랑한다.

탄광지역이었던 화순에는 광부들이 석탄기루를 씹어내기 위해 즐겨 먹던 돼지 편육과 국밥, 흑두부 요리, 흑염소 요리가 별미다. 화순에서 자란 품질 좋은 콩과 염소 등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보며 겨울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겨울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광과 고즈넉한 정취는 인생샷의 성지이자 낭만의 극치”라며 “전남의 설원 여행지에서 로맨틱한 추억도 쌓고 다양한 별미도 즐기면서 행복한 연말여행 보내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 기자

담양 메타프로방스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어우러진 유럽풍 마을로 겨울이면 붉은 지붕과 알록달록한 건물 위로 눈이 내려 동화 같은 설경을 만든다. 메타세쿼이아 길 양옆으로 쌓인 눈과 포토존, 카페 거리의 조명이 어우러져 ‘남

도의 작은 겨울 유럽’을 연출, 가족, 연인들이 여행지로 인기가 높다.

대나무 속에 합뜰을 넣어 지은 대통밥과 죽순나물, 100년 전통의 조리법으로 만든 떡갈비 등 담양의 정취를 느낄 음식을 맛보며 겨울철 몸과

마음을 보양할 수 있다.

구례 지리산 노고단은 해발 1천507m 고지에 자리한 3대 주봉 중 하나다. 겨울이면 능선과 구상나무 군락이 하얀 설원으로 장대한 파노라마를 이룬다. 상고대가 피어오른 숲과 눈 덮인 목

광주시, 지역인재 양성 라이즈 사업 확대

총 48억원 규모 3개 단위과제

30일까지 참여 대학 추가 공모

광주시가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수행 대학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비 분담(매칭) 특전과 시비 추가 분담분을 합한 총 48억원의 사업 규모로 추진한다.

추가 공모 대상은 광주형 로컬커스터마이징 청년 혁신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 등 기존 2개 과제와 인공지능(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초광역 신규 과제 1개다.

‘광주형 로컬커스터마이징 청년 혁신 인재 양성’ 과제는 지역 전략산업 첨단 분야에 대응 활용·복합 역량을 갖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학생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 정주형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총 30억원 규모로 2개 대학(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연구개발 기반 혁신 실증스튜디오 운영’ 과제는 지역 대학·기관이 보유한 공동장비를 교차 활용, 장비 기반 연구 기반시설을 연계하고 기업에 실제 적용된 사례 제공을 통해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총 15억원 규모로 1개 대학(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신규 공모 과제인 ‘AI·로봇 인증체계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사업은 광주(AI)와 대구(로봇)가 공동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이다.

AI·로봇 인증체계 구축과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운영, 피지컬 AI 시대 핵심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목표로 한다. 총 3억원 규모로 1개 대학(컨소시엄)을 선정한다.

이번 추가 공모 사업의 수행대학은 2026년 1월 중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광주라이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사업이 확정되면 광주시는 기존 라이즈 사업을 포함해 총 17개 대학이 16개 단위과제, 7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국 3특 초광역 전략’과 연계해 광주·대구 등 초광역 교육·산업 협력을 확대해 초광역권 성장을 만드는 데 광주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보건환경研 “겨울철 쯔쯔가무시증 주의”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최근 전남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즉시 샤워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텔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 온난화로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겨울

철에도 발병 사례가 이어지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 지역 12월 쯔쯔가무시증 발생 건수는 2021년 79건, 2022년 96건, 2023년 109건, 2024년 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 (Orientia tsutsugamushi)에 의해 감염된 텔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한다.

초기에는 발열·오한·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물린 부위에 가피가 생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즉시 샤워 및 의류 세탁 등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양시원 기자

http://muan.nonghyup.com

꿈과 미래가 있는 황토무안
무안농협이 함께 합니다

무안농협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중앙로 105
061-453-2581

잊지 못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지금이
캐논타이밍

2025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께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2025년 12월 31일(수)
점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2026년 1월 7일(수)

납품 전문업체 | 캐논스토어 062)522-2000
캐논코리아총판 062)350-8397